

# 꾸란의 이해

사이드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 저

<http://www.quran.or.kr>

# 한국 이슬람 중앙회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도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 차 례

재판 발간사

머리말

제 1 부 책: 고정관념  
꾸란: 예외  
독자들의 당황  
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  
몇 가지 기본적인 물음  
기원  
문제와 중심주제와 목적  
다양성 속의 통일성  
계시방법  
첫번째 국면과 초기 계시  
두번째 국면  
세번째 국면

제 2 부 문체  
반복  
내부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  
꾸란을 연구하는 방법  
실천-완전한 이해의 유일한 방법  
메시지의 보편성  
완벽한 생활규범  
해석의 차이  
부록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재판 발간사

알라 수부하나후와 따알라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이슬람 선교 증진을 위하여 사이드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의 “꾸란의 이해”를 재출판할 수 있도록 알라께서 기회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책이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가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널리 배포되고 읽혀진다면 우리의 노력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책은 International Islamic Federation of Student Organizations(I.I.F.S.O)과 Korea Muslim Federation(K.M.F)의 공동작업으로 재출판되었습니다.

알라 수부하나후와 따알라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 책의 재출판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준 니자뭇딘 몰라 형제와 재정적인 협조와 가능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아흐만 토론지 박사 그리고 웨이크 압둘라 야히야 알 지프리씨와 이 작업을 도와주신 그 밖의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라여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옵고 이슬람을 위한 저희의 노력을 받아 주소서

한국이슬람중앙회

서울

1991 년 2 월(서기)

1411 년 8 월(히즈라후)

압둘살람

선교위원회위원장

한국이슬람중앙회

하지 야신 배삼진

이사장

한국이슬람중앙회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머리말

오래 전부터 저희 꾸란 학습회는 무슬림은 물론 무슬림이 아닌 이들에게도 꾸란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꾸란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뜻 간절하였던 바 여러 책자를 엄중 검토하던 중 사이드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 선생의 Towards Understanding the Quran(꾸란의 이해)을 선정하게 되었고 비로소 번역이 끝나 여러분들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역이 있더라도 저희들 모두의 마음과 선행이 오직 하나님과 무슬림 가족들을 위한 것임을 양지하시어 그 의도를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꾸란 학습회의 번역서 시리즈 중 ‘무슬림 청년 운동’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되는 책으로서 오랜동안 망설이던 끝에 꾸란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고 최근에 무슬림이 되신 한 형제의 희사로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86년 1월 15일  
꾸란 학습회

## 꾸란의 이해 제 1 부

### 책: 고정관념

보통 책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나 그 문제의 여러 측면을 다룬 한 편의 글을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와 사상, 논증과 추론이 저자에 의해 논리적인 순서로 펼쳐져 있습니다. 꾸란 역시 한 권의 책이므로 꾸란을 처음 대하는 독자가 꾸란이 같은 형식에 따라 그것이 다루고 있는 문제를 말하고 각 장과 절에서 그 문제의 여러 측면을 논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더우기 꾸란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책이므로 각 장에서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을 논하고 그 땀마다 관련 쟁명을 규정하였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에 대해 어떤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 꾸란: 예외

그러나 독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전에 일찌기 보지 못한 아주 진기한 형식입니다. 많은 문제들-신학적 쟁점, 도덕, 교훈, 행위규칙, 권고, 구속적 법령, 인자한 충고, 실물교육, 사람이나 민족, 사건에 대한 비판, 책망, 경고, 기쁜 소식, 위안, 위로와 격려, 논증과 추리, 설명적 일화, 역사 사건과 자연현상-이 겹보기에 이상스러우리만치 밀집되어 있으며 끝이 없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겹보기에 아무런 논리적 순서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다른 식으로 말을 달리해서 자꾸 되풀이됩니다. 한 문제에 느닷없이 다른

문제가 이어지는 듯이 보입니다. 처음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도 전에 그것을 논의하는 도중에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자와 청자가 번번히 바뀌며 메시지와 이야기가 다른 각도에서 되풀이됩니다. 한 장이나 절이 끝나고 다른 장이나 절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게 할 만한 표식도 없습니다.

역사가 나와있지만 역사가들의 문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학과 형이상학의 문제가 나와 있지만 그 용어는 논리학이나 철학의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류를 논하지만 박물학의 용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논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그 다루는 방향이 사회 과학 서적과 같지 않습니다. 꾸란은 법과 법 원칙을 규정하지만 그 용어나 문체는 법학자들의 용어나 문체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 교훈이 있지만 모든 것이 윤리학 서적에서 볼수 있는 방법과 다르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꾸란은 일반 서적과 어떻게 다른니까?**

## **독자들의 당황**

모든 것이 이처럼 생소하고 사람들의 책에 대한 관념과 뚜렷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꾸란을 처음 대하는 독자는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전체가 체계와 일관성이 없는 산만한 저서이거나 여러 문제에 대해 닥치는 대로 많이 메모해 두었다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들 메모를 마치 이어진 이야기처럼 보이게끔 아무렇게나 모아서 편찬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편협한 비판자는 바로 이 점때문에 풍부한 수확을 거두어 꾸란에 대한 반대에 반대를 쌓아 올립니다. 믿는 사람 역시 꾸란을 계시서로 믿음에도 불고하고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억지로 의심을 가라앉히거나 순서가 없어보이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혹은 순서 부재설에 굴복하되 자기가 만든 장치로 일관성을 찾으려 하다가 각 성귀에 의도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꾸란을 처음 대하는 독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 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

어느 책이든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책이 다루는 문제, 그 목적과 의도, 중심 주제, 문체와 용어, 그 책에 사용된 특유의 함축적인 말, 그리고 그 책이 말하거나 다루는 내용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시각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들은 대체로 이 점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으며 그 의미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짜낼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꾸란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게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책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꾸란을 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그 문제와 중심 주제를 명시하지도 않거니와 그 문체와 특유의 함축어들이 대부분 생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꾸란이 말하는 내용이나 거기에 들어있는 말들은 그 배경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독자는 꾸란의 지면 도처에 산재해 있는 지혜의 진주로부터 얻는 바가 많겠지만 그 메시지의 정신을 파악하지 못하면 꾸란이 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아는 대신 여기저기서 조각들을 줍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사람조차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꾸란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사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파헤쳐 보지 못하며 자기들이 읽은 내용을 많이 이해하거나 실감하지 못합니다. 빛나는 금덩어리와 같은 송고한 지니를 송고하게 말한 성귀가 많지만 건성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문맥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꾸란의 용어와 함축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꾸란 특유의 문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독자는 실제 의미하는 바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배경을 몰라서 범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책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위 물음과 관련하여 꾸란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몇 가지 기본적인 믿음

그렇다면 꾸란의 연구 방법은 무엇이며 꾸란은 어떠한 책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시되었으며 무엇을 근거로 단편들을

짜맞추었습니까? 꾸란이 다루는 문제는 무엇이며 꾸란의 모든 말씀과 논의의 배후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상세하게 언급된 무수한 문제들이 의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중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꾸란의 논법은 무엇이며 그 문체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이런 물음과 이와 유사한 물음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다면 술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꾸란과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독자들이 논의의 순서와 논리적인 논문을 찾다가 그것이 없어서 갈피를 못잡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는데 있습니다. 독자들은 꾸란을 잡을 때 그것이 종교 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꾸란을 연구할 때 가지는 종교문제와 책에 대한 이런 선입관은 다른 책에 대한 연구에서 다시 말하면 책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이 대하는 것은 기대한 바와는 전혀 달라서 논리의 맥을 찾지 못하고 행간에서 의미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독자는 마치 길잡이가 될 경계표나 도표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가 애초에 “꾸란이 그러한 종류로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라는 말을 들어 둔다면 온갖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꾸란은 여타의 모든 책과 전혀 다른 식으로 쓰여졌으며 그 논제와 내용과 전개 역시 독특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란이 판에 박힌 형식에 맞으리라는 기대는 망상입니다. 책에 대한 고정 관념은 이해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므로 이해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마음에서 선입관을 제거하고 그 책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ㄱ) 꾸란에 대해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ㄴ) 어떤 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과 방해가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기원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꾸란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뿐인 정직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우선 인간 무함만(그 분께 평화가 깃들기를)이 세워 세상에 제시한 기본 전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꾸란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로 알려진 그 분의 광대무변한 영역의 그 작은 부분에 인간을 둔 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님이요 주인인 하나님입니다. 그 분은 인간에게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셨으며 선택과 행동의 자유와 지구의 자원을 개발할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자신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에게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하셨다.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하셨습니까?

2.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시면서 그 분은 인간에게 다음의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셨다:

- (1) 하나님이신 그 분은 인간 자신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유일신이시며 최고의 주권자입니다.
- (2) 나라(왕국)과 권세는 오직 그 분의 것이다. 인간은 독립된 주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동시에 그 분외에는 아무에게도 충성을 바칠 의무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라도 복종과 숭배<sup>1</sup>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 (3) 인간이 지상에 있는 기간- 그 기간 동안만 제한된 권위와 자치권이 부여되었다-은 사실이나 시험기간이다. 그 기간이 끝나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 기록을 조사하여 자신이 맡은 청지기의 직무를 만족스럽게 이행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 (4)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 밖에 없는 올바르고 적절한 행로는 의식적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따라서 찬미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따금 인간을 유도하기 위해 공포하기로 결정하시는

---

<sup>1</sup> 꾸란의 용어로 “이바다”에 해당하는 이슬람에서의 “숭배”는 타종교의 경우보다 함축된 의미가 훨씬 넓다.

교훈에 따라 아주 빈틈없이 충실하게 행동하며 자기의 전생애가 사실은 시험기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자각하여 완전한 순종 속에서 전생애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대리자로서의 인간의 의무이다. 인간은 결코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어긋나는 다른 생활 방식은 모두 잘못된 것임에 따라서 피해야 한다.

- (5) 인간이 자기 뜻대로 첫번째 행로를 택한다면 그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평화롭고 평온한 생애가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갈때 낙원이라고 하는 저 영원한 행복의 거처에 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것이다.
- (6) 그러나 역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어떤 다른 행로를 택한다면 싸움과 불행과 고통이 지상에서의 운명이 될 것이며 내세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의 구덩이에 남겨질 것이다.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까?

3. 이러한 교훈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상의 거처에서 출발시켰으며 첫번째 남녀인 아담과 이브(두 분께 평화가 있기를)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이 따르게 될 필요 교훈을 베풀었습니다. 이들 인류의 첫 두 구성원은 무지의 암흑 속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다운 지식의 빛이 온전히 비치는 속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체 즉 하나님과 세계와 그에 대한 그분의 계획 세계와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사를 다스리는데 의거해야 할 법에 대한 필수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역시 같은 길을 따르라고 즉 무슬림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인도를 소홀히 하여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난을 치고 심술을 부려 그것을 왜곡하였습니다.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무형, 유형의 존재를 신격화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공유자로 혹은 그 분의 동반자로 대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미신과 전설, 곡해된 이론과 철학, 여러 유형의 날조된 신앙과 종교를 끌어들이므로써 자기들이 처음에 받은 실체에 대한 지식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규정한 도덕과 행위의 기본 원칙들(샤리아)을 내버리거나 개인적인 편견이나 사심에 끌려 개악하였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제정한 부당한 법은 다툼과 불법행위를 야기하였습니다.

- (ㄱ)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 (ㄴ)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이 받은 것을 타락시켰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려 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선택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악자들이 반역 행위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을 죽이셨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의 수명이정해져 있다는 개념에 어긋났을 것입니다. 특히 그 분은 애초에 선택의 자유를 존속시키면서 스스로 인간에게 계속 인도를 베풀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청한 책임을 이행하여 그 분은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모든 행실과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분은 이들을 자신의 대표자로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전하셨으며 실체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주시고 인류가 벗어난 바른 길로 인류를 돌이키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를 인도하셨습니까?**

예언자들(그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로 알려진 이들 선택된 대표자들은 여러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일으켜졌습니다. 이런 과정은 수천년 동안 계속되어 수많은 예언자들이 일으켜졌습니다. 모두가 인간이 지상에서 생애를 시작할 때 가르친 같은 종교, 같은 생활 방식, 같은 의롭고 바른 길을 전파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같은 인도 즉 최초로 인간을 위해 규정된 도덕과 행위의 영원한 원칙들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동료인간들을 이 한 종교, 이 인도로 초대하고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조직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름에 나라 전체에 그 법을 확립하고 그 위반을 방지할 공동체를 만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 모두가 충실하게 더할 수 없이 근면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명을 수행했지만 거의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초대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초대에 유의하여 그 당시에 무슬림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점점 쇠퇴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더니 그 인도를 아예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인도가 다른 공동체에 맡겨져서 변조, 첨가 혹은 그 양자에 의해 기형으로 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ㄱ) 예언자들이 전파하고 실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ㄴ) 그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 (ㄷ)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어떠했습니까?

6. 예언자를 정하는 이런 과정은 서력 기원 7 세기 초<sup>2</sup>아라비아의 메카시에서 무함만(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을 일으키고 그 분에게 전임자들(그 분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사명을 부여함으로써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 분은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그 뺏긴 길에 빠져버린 옛 예언자들의 추종자에게도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른 길로 초대하여 (자신에게 계시된)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그 인도에 따라 개인 생활과 집단 생활을 스스로 규율하여 나머지 인류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그 분의 임무였습니다. 꾸란 본문(그 모두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고 충실한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을 매개로 하여 예언자에게 계시된 말씀 그대로 되어 있다) 이 바로 인류에 대한 이러한 초대, 하늘에서 내려온 이러한 인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 (ㄱ) 예언자 시대의 막을 내린 예언자는 언제 정해졌습니까?

---

<sup>2</sup>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는 서력 기원 570 년에 탄생하셨지만 그 분의 나이가 40 세가 되는 해인 610 년에 부름을 받았으므로 6 세기가 아니라 7 세기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L) 그 분의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 문제와 중심 주제와 목적

이런 배경에 비추어 꾸란이 다루는 문제와 중심 주제와 목적을 이끌어내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중심주제와 목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1) 꾸란이 다루는 문제는 행복이 따르는 올바른 생활 방식과 불행이 따르는 그릇된 생활 방식이라는 특별한 맥락 속에 있는 자신이다.
- (2) 중심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세계와 자신의 존재에 관하여 꾸민 이론과 거기에 바탕을 둔 여러 생활 방식은 모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며 피상적 관찰과 사색 혹은 이기적이고 저속한 욕망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서 결국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임명하실 때 친히 가르쳐 주신 것만이 참다운 실체이며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그런 생활 방식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바르고 행복한 생활 방식이다.
- (3) 꾸란의 목적은 인간을 이런 바른 생활방식으로 초대하고 소홀하거나 무관심해서 그 동안 내내 잊고 있었거나 악의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들어 버린 하나님의 인도를 부족하지 않게 상세히<sup>3</sup> 제시하는 것이다.

꾸란이 다룬 문제와 중심주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 다양성 속의 통일성

---

<sup>3</sup> 부족하지 않게 상세히 라고 말하는 것은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친히 권한이 부여된 해석자의 자격으로 하신 설명과 이상적인 본보기로서의 그 분 자신의 관례가 꾸란의 가르침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그 분은 하나님의 직접 인도 아래 사명을 수행하였으며 몇번(6 번정도)안되지만 그 분이 하나님의 승인이

독자가 전술한 고려 사항을 염두해 두고 꾸란을 다시 본다면 꾸란이 그 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통일성이 있으며 어떠한 점에 있어서나 그 문제와 목적 혹은 중심 주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번쩍이는 갖가지 색깔의 진주와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멋지게 매달아 화환을 이룬 줄과 관계를 맺듯이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풍부하게 도입된 문제 모두가 중심주제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꾸란은 천지의 창조와 그 구조, 인간의 출생과 체격, 자연 현상과 옛 민족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민족의 신앙과 행위를 평하여 형이상학적 문제를 해설하고 많은 기타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결코 이들 문제나 다른 분과 학문에 대한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변함없이 실체에 대한 인간의 정보르 교란시키는 요인과 오인을 없애고 그 정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근본이 잘못되고 결과가 불행한 길을 걷는 죄에 대해 경고하고 실체와 부합하며 결과가 행복한 행위 규범과 생활 방식을 택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꾸란이 직접 관련된 어느 한가지 이상의 문제에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그렇게 하되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생략하고 중심 주제를 재개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비할 데 없이 통일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꾸란에 의해 구체화된 하나님의 초대를 중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꾸란의 내용은 어떻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 **게시 방법**

전술한 내용이 꾸란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또한 꾸란이 게시된 방법을 충분히 알아두지 않으면 꾸란의 문체와 내부의 배열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책의 형태로 편집하신 다음에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에게 넘겨 주시어 사람들을 특별한 생활 방식으로 초대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서 발행, 배포케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꾸란은 사람이 쓴 책처럼, 다른 문제와 중심 주제를 밝히고 다음에

논리적 순서로 설명해 나가는 상투적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꾸란은 그런 유의 논리적 순서도 없거니와 그러한 상투 형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꾸란을 이해하기 위해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꾸란은 인간이 쓴 책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다면 꾸란은 어떤 책이며 어떤 식으로 쓰여졌느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중의 하나인 아라비아 지방의 켈카시 사람을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도시로부터 자신의 부족한 꾸라이쉬족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명하신 것이 꾸란의 기원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 사명의 예비 단계에 관련된 교훈과 메시지만을 청중을 위해 받았습니다. 이들 교훈과 메시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1) 짐스럽고 책임이 무거운 과업을 수행할 마음의 태세를 갖추게하기 위한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 자신에 대한 교훈과 그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
- (2) 실체에 대한 최초의 고지와 잘못된 신앙과 관습으로 유도해 온 만연된 오해에 대한 짧은 논박
- (3)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서의 초대와 인간에게 행보울 주고 그것을 약속하는 기본 도적 원칙의 선언.

**사도님께서 최초로 받으신 메시지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 **첫번째 국면과 초기의 계시**

사명 초기의 계시는 짧고 간결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된 말투, 감미로운 언어, 감동적 웅변, 최고의 용인된 문학적 기준까지도 능가하는 뛰어난 문학적 향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 직접 마음에게 닿았으며 음악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그 운을 구조가 혀를 움직여 저절로 그 말씀을 되뇌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색을 상당히 띠고 있어서 보편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그 논증과 논평, 그리고 인용례는 모두 주변과 그들 민족의 문화환경에서 도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의 역사와 전통, 일상 보는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었고 그들이 유의하여 자신들의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논의 전체가 신앙상의 잘못, 도덕의 타락, 사회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무함만(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의 성직의 이러한 예비 단계 혹은 첫 번째 국면은 약 5년 간 지속되었고 그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 (1)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무슬림 공동체를 이루려는 결의를 보였다;
- (2)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사리사욕 혹은 전통적인 관습에 대한 애착 때문에 초대에 반대하기를 결의했다.
- (3) 메시지가 꾸라이쉬 족이 점유한 지역의 경계를 넘어 보다 넓은 범위에까지 미치기 시작하였다.

## 두 번째 국면

이어서 새로운 제도와 기존 구질서 사이에 벌어진 지극히 힘들었던 8년 간의 투쟁을 목격한 두 번째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멕카인들과 꾸라이쉬 족 뿐만 아니라 도처에 있던 구질서의 존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새로 일어난 운동을 탄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자기들 손 안에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 운동을 일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욕설, 사나운 반대, 터무니없는 주장, 그리고 악의적인 비난을 일삼는 악랄한 운동이 펼쳐지고 악랄하게 주도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켜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온갖 수단이 남김없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야만적인 잔혹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서 두 번에 걸쳐 아비시니아로 이주하여 망명처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세 번째는 멕카를 아주 떠나 메디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 이슬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운동을 어떻게 탄압했습니까?

그러나 격렬하게 치솟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진전을 거듭하여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맥카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적대자들의 마음을 몹시 난폭하고 쓰라리게 만든 것은 가족의 유대를 끊어버린 새 운동의 바로 이러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와 조카, 아들과 딸, 자매와 그 남편들이 자기들의 품을 떠나 아주 헌신적인 새 질서의 지지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편의 원로들을 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의미 심장한 요인은 구질서를 갑자기 떠난 사람들이 최상류 계층으로 알려진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품으로 들어 온 후에 미덕과 청렴의 모범이 되어 누구라도 그들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적어도 이처럼 큰 인물들의 마음을 끌어 그들을 이렇게 변화 시킨 운동의 우월성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전하였으며 사회의 일부 최상류 계층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런 상황에 발맞추어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그분께 평화가 있기를)에게 각양의 설득력있는 계시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힘이 넘치고 장엄한 매우 고무적인 웅변조의 단편 형태를 취한 이들의 계시는 그 흐름이 급류를 연상케 하였고 그 힘은 홍수와 같았으며 그 맹렬함은 타오르는 불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한편 이들 계시는 믿는 이들에게 의무를 알려주고 일체감을 일깨웠으며 경건한 생활 방식과 고귀한 도덕적 행위, 고결한 인격과 새 믿음의 전파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최후의 승리와 내세의 행복을 약속하여 그들의 결의를 굳게 하였으며 곳곳하게 참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대의 명분을 위한 희생 정신과 열의를 깊이 불어넣어 아무리 큰 역경이라도 이겨 내고 아무리 거친 반대의 폭풍이라도 헤쳐 나갈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갖게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적대자들과 바른 길을 떠나 표류하는 자들, 그리고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그 역사를 익히 알고 있는 선인들의 운명을 알려 경고하고 여행길에 자주 지나치는 폐허가 된 선인들의 주거지를 보고 배워야 할 교훈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니의 유일성과 내세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이 매일 보는 자연 현상 속의 명백한 표징을 인용하였습니다. 마음에 직접 가닿고 이성애 호소하는 설득력있는 논증을 펼쳐 쉬르크(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동반자의 존재를 믿는 것)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인간의 그릇된 생각과 전통적인 신념과 생활 방식에 대한 애착을 논박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제거되었고 모든 반대가 타당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겪었고 남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정서적인 혼란이 남김없이 해소되었습니다. 무지한 구질서가 편든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행악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날의 두려운 체험과 지옥의 고통에 대해 경고하였고 문란해진 도덕과 윤리, 그릇된 생활방식과 무지한 관습, 진리에 대해 적대 행위와 무슬림에 대한 박해를 탓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제나 도덕적인 인간 사회의 바탕을 이루어 온 도덕과 문화의 기본 원칙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 국면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마다 운동이 확산되고 그 템포가 빨라졌으며 반대도 더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신념과 여러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더 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이들 첫번째 국면과 두번째 국면이 바로 맥카시대 계시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ㄱ) 이 기간 중에 온 계시의 특징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ㄴ) 계시의 내용은 운동의 전개 양상에 어떻게 발맞추었습니까?

## 세 번째 국면

운동이 13년 동안 계속되었을 때 걸보기에는 우연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맥카시가 군사 행동의 중심지로 확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운동은 아라비아 각처에 있는 그

지지자들을 한 곳으로 끌어 모아 형세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와 그 분의 추종자들 대부분은 메디나로 이주하였고 이와 같이 운동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 세 번째 국면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마지막 국면은 전체적인 양상이 일변하였습니다. 이제 무슬림 공동체는 국가를 수립하고 그것을 존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구질서를 옹호하는 자들과의 투쟁은 곧 무력 충돌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전 시대의 예언자들을 추종하는 자들 즉 유태인과 기독교인들의 대집단이 존재함으로써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였습니다. 무슬림 공동체에 위선자들이 침투하여 이들 역시 처리해야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격렬하게 싸움을 계속한 끝에 운동은 승리를 거두어 아라비아 전역이 그 지배 아래 들어 왔으며 아라비아 너머에 있는 훨씬 넓은 세계에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메시지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국면 역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마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도 그 내용과 형식의 양자가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왕명이나 칙령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 교사가 가르쳐 주는 듯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조가 혁신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계시는 공동체의 조직, 국가의 수립, 도덕적인 사회의 건설 방침과 각계 각층에서 인간 활동의 기저를 이루어야 할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선자들과 짐니스<sup>4</sup>를 어떻게 처우하고 성서의 백성<sup>5</sup>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했습니까? 그 국가에 대항한 자들과 국가와 조약 관계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였습니까?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는 대리자로서의 자격으로 집단 행동을 할 일차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각오를 가져야 했습니까?

---

<sup>4</sup> 이것은 이슬람 국가의 보호 아래 들어온 비무슬림들을 가리키는 이슬람의 용어이다. 이들 비무슬림들이 특히 종교적, 문화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으며 이 점에 있어서 비무슬림들의 지배 아래 있던 타지역의 무슬림보다 훨씬 나은 처지에 있었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무슬림 통치자는 유럽인들이 곳곳에서 자행한 바와는 달리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나 민족을 결코 착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up>5</sup> 이 말은 유태인과 기독교인들을 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서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이 꾸란에서 그들에게 적용되었다.

(ㄱ) 마지막 국면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ㄴ) 이 시기의 계시는 어떤 특징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 계시를 통하여 무슬림들은 필요한 교훈과 훈련을 받았으며 그들이 나약하고 결점이 있다는 경고와 희생 정신으로써 필요하다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무슬림들에게는 승리나 패배, 번영이나 역경, 풍부나 빈곤, 평화나 소란 등의 어떤 경우에도 생활상의 문제와 행위를 규율, 규제하기 위해 의거해야 할 도덕 원칙과 때가 되면 예언자의 계승자들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슬람이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 즉 성서의 백성들과 위선자들, 비무슬림과 쉬르크의 옹호자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은 남김없이 말할 수 있도록 감칠맛 나는 추리와 엄한 훈련을 하거나 하나님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거나 역사의 교훈을 언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의 길을 바꾸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메디나 계시의 배경입니다.

이 시기에 계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들에게 무엇을 제시하였습니까?

## 이슬람의 메시지

**무함만(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

보라! 속계에 무학의 사도가 태어났으니

잘 생긴 아이, 고귀한 혈통,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자비와 지혜가 더욱 고구하도다

지존자의 영적 진리와 메시지를 받아 타오르는 말로 전파할 운명이 지워졌도다

옛날에 어떤 이들은 암흑 속에 태어나 역사의 빛이 닿지 못하였고;

또 사 아는 욕된 속세를 떠나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빛을 찾는도다

압둘라 유순 알리

## 꾸란의 이해 제 2 부

### 문체

전술한 배경 설명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꾸란이 아주 기본적인 성격의 개혁 운동이 시작됨과 더불어 계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은 그 운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23 년간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에게 필요한 인도를 베풀기 위한 계시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계시가 결코 박사 논문에서 볼 수 있는 논리적인 순서로 편집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이들 다양한 계시는 그 장단을 막론하고 뼈라나 팜플렛의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당사자인 청중에게 말하고 후에 같은 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체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였으며 대학 교수의 강의 스타일과는 판이하였습니다. 이들 계시는 본질적으로 사명이 부여된 한 인물(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 머리와 마음, 이성과 감정에 호소해야 할 운동 지도자의 입에 주입된 공개 강연이었습니다. 그 분은 온갖 심성과 다양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다투고 여러 자격으로 일해야 하였으며 사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분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기 말을 유의하게 하기 위해 발언할 기회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 분은 사상에 혁명을 일으키고 감정을 드높이며 각처에서 갖가지 형태로 일어난 반대 세력을 분쇄하고 자기의 추종자와 동료들 교육, 개선, 훈련하여 그들에게 정열과 열심, 결의와 결심을 불어 넣으며 적을 친구로 의심하는 자를

믿는자로 만들고 반대자들의 모든 논리를 무디게 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도덕적 지배력을 부식 버려야 하였습니다. 요컨데, 그 분은 사명을 가진 사람, 운동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배워야 하였으며 특히 소위 대부분의 개혁자들과는 달리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시가 구두강연의 형태와 이러한 운동의 요건에 부합하는 문체로 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강의 스타일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ㄱ) 계시는 어떤 식으로 보내졌으며 어떤 문체로 되어 있습니까? 계시의 문체는 사도님의 사명의 성격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 반복

전술한 사실로부터 꾸란에 반복되는 내용이 아주 많은 이유를 어렵지 않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생활 양식, 그리고 사회 체제의 철저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따라서 매우 실천적인 성격을 갖는 운동이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각 단계마다 그 특정한 단계나 국면이 단지 몇 달간 지속되든 혹은 몇 년씩이나 걸리든 상관없이 다음 단계에 속한 것은 제외하고 그 단계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많이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같은 말로 같은 식으로 되풀이 된다면 싫증이 나게 되고 귀에 거슬리게 되며 메시지가 호소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되풀이할 때마다 말과 문체를 달리하여 단조로움을 없애고 되풀이되어도 호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통합을 기하는 데도 반복은 필요합니다.

(ㄱ) 꾸란에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ㄴ)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상적입니까?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은 기본 교리와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각 단계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여 이들 교리와 원칙을 되풀이 주입시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의 각 단계에서 계시된 각종 수라 모두가 워낙 내용상 유사성-그 유사성의

정도가 말씨와 문체의 다양성에 의해 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을 가지기는 하나 교리와 행위에 관한 기본 문제들, 예를 들면 따우히드(하나님의 유일성),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습득 배양해야 할 자질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덕성, 부활과 심판날의 최후 심판, 예언자 제도와 계시 성서에 대한 믿음과 경건함,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인내와 확고부동함과 같은 미덕 등이 꾸란 지면 전체에 걸쳐 되풀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이들 교리와 행위는 기본적인므로 어느 단계에서나 그에 대한 강조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기본 개념이 약화되면 운동의 정신이 직접 영향을 받아 그 진전을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꾸란의 내용이 되풀이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부순서**

이들 고려 사항은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각 수라를 계시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운동이 진전함에 따라 23 년 동안 계속 계시된 꾸란은 (다양한 길이의)단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이 일단 결실을 맺자, 분명히 계시 순서는 통합 원문에 부합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에 더 부합하는 다른 순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원래 메시지는 일차적으로 꾸라이쉬 족과 이슬람을 처음 접하는 인근의 다른 부족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계시는 주로 근본 원칙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의 사명이 끝난 이후에는 그 분의 초대에 응하여 무슬림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교훈과 실천의 양면에 있어서 그 분이 완수하신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 사람들에게로 강조의 초점이 이동하는 것이 논리적이었습니다. 이제 일차적인 요건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규율하게 될 법을 철저히 파악하며 옛예언자들의 추종자를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여 결국 역사 기록에서 사라지게 한 요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꾸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 무슬림 공동체는

아직 이슬람을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세계에 이슬람을 소개 함으로써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의 과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꾸란이 게시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꾸란과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또 다른 관련 사항은 꾸란이 내용이 비슷한 각종 게시를 총괄 한다면 그 성서의 특질에 맞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메디나 국면에 관한 이야기가 메카 국면에서 받은 교훈 사이에 들어가고 거꾸로 메카 국면에서 받은 교훈이 메디나 국면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며 초기의 교훈이 초기의 결말 단계의 교훈 사이에 있고 거꾸로 결말 단계의 교훈이 초기의 교훈 사이에 있어서 독자에게 단지 단편이 아니라 메시지 교훈이 넓은 전경이 빠짐없이 보이게 한다면 더 한층 적절한 것입니다.

### 꾸란이 내용이 비슷한 게시를 한데 모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대 순서로 하였다면 또 다른 이유로 적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 단편이 게시된 상황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함께 게시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동시에 꾸란에 덧붙일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순서가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덧붙인 내용은 꾸란의 불가결한 부록-필수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이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체 원문을 편집, 보전하게 하신 그 특정한 목적에 어긋났을 것입니다. 명백히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편집이 다른 것은 일체없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지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도시사람과 시골사람 학자와 평민이 항상 쉽게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 크기를 알맞게 하여 지혜의 다소에 상관없이 만인의 창조주요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원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 부분을 이를 방대한 역사 이야기를 첨부해서 하나님의 게시를 편집했다면 이런 목적에 완전히 어긋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심히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꾸란의 내부 순서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작심한 사람들은 사실상 꾸란의 목적과 의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꾸란이 단지 역사와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 게시되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대 순서가 적절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

이와 관련하여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논의된 순서가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의 계승자들에 의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서를 지정한 분은 바로 예언자 자신이었습니다. 그 분은 항상 습관적으로 계시를 한 편 발자마자 곧 자신의 서기를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불러 오게하여 계시를 한 마디씩 받아 쓰게 하셨으며 동시에 이러저러한 수라의 앞이나 혹은 뒤라는 식으로 그것을 정확히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인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단편적 계시가 독립된 수라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분은 이미 게시된 수라내에서 그것이 들어가야 할 정확한 위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분은 예배시에 꾸란을 낭송할 때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켰으며 자신의 동료들도 역시 바로 같은 수서로 꾸란을 암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과정이 끝난 날 특정한 순서로 편집하는 과정 역시 끝났다는 것은 입증된 역사 사실입니다. 꾸란이 게시되게 하신 분이 또한 그 내부 순서를 지정하신 분이었던 바, 그 일은 실제로 꾸란이 게시된 인물(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누구라도 혹은 어떤 다른 매개자도 그 일과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순서를)바꾸어 놓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 꾸란은 누가 어떤 식으로 그 순서를 정했습니까?

또 한가지 사실은 예배가 애초부터 의무였고 꾸란 귀절을 낭송하는 것이 예배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처음부터 아주 당연히 꾸란 귀절을 암기하기 시작하였으며 꾸란의 계시가 계속되었던 것처럼 그의 암기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문 보전은 성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계시를 받은 후에 성귀 혹은 수라 전체를 기록시키셨던 야자수잎이나 뼈 혹은 양피지 조각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문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마귀적인 힘이 단 한마디도 침삭되거나 삽입하는 장난을 칠 수 없었습니다.

**예배 의식과 관련하여 꾸란 원문은 어떤 식으로 보존되었습니까?**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타계하신 후 배교의 물결이 나라 각처를 휩쓸고 꾸란을 암기한 동료들 다수가 반역자들과 싸우다 전사하자 한 가지 출처 즉 꾸란을 암기한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지해서 꾸란 전문을 보존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며 꾸란을 기록으로도 통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마르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문제의 중요성을 아부 바크르(칼리프)에게 설명하였고 아부 바크르는 조금 주저하다가 충고를 받아들여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의 서기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자이드 빈 사비트 안사리(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친히 남기신 기록 단편들 모두와 동료들이 스스로 마련한 단편들을 수집하는 식의 절차를 택하였습니다. 꾸란을 암기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세 가지 출처를 근거로 하여 합의를 본 전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전을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의 아내들 중 하나인 하프자에 맡겼습니다. 이 원문을 보고 자기 사본을 만들거나 자기들이 이미 이용할 수 있었던 원문을 정정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열람이 허가되었습니다.

**꾸란 정전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 원문의 사본을 널리 배포하였습니다. 사본은 제 3 대 칼리프인 우쓰만 시대에 배포되었습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아랍어에도 역시 방언의 차이가 있어서 같은 말이라도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은 달리 발음하였습니다. 꾸란은 메카 방언 즉 표준 아랍어로 게시되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들 식대로 꾸란을 읽는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래도 뜻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식으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낭송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이렇게 해도 해로울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아라비아의 변경을 넘어 전파됨에 따라 아랍인과 비아랍인 사이의 접촉이 점점 늘어나서 아랍어의 순수성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세 가지 위험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사람들이 꾸란을 자기들 식대로 낭송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논쟁과 불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방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 특정 방언으로 꾸란을 낭송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일부러 말을 왜곡 시킨다고 생각하여 장난치고 있다는 비난을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결국 방언 차이 때문에 실제로 오해가 생기고 말도 달라져서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접촉을 통하여 그 언어에 영향을 받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자기들 식대로 꾸란을 읽기 시작한다면 꾸란의 문학적 향기가 손상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험에 비추어 우쓰만은 동료들과 의논해서 차후로는 어디서나 아부바크르 시대에 만들어진 정전의 사본만 사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방 사투리나 방언으로 된 사본의 배포를 완전히 금하였습니다.

- (ㄱ)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들 방언으로 꾸란을 읽는 것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ㄴ) 이슬람이 아라비아를 넘어 전파되자 어떤 위험이 생겼습니까?
- (ㄷ) 이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지금 세계 각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꾸란은 아부바크르의 감독하에 만들어진 정전의 정확한 사본입니다. 이들 사본을 우쓰만이 칼리프로 있을 때 관의 후원하에 각 도시와 나라로 보냈습니다. 이들 후기 사본 중 일부가 지금까지도 몇 몇 도서관에 원래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문이 보존된 사실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누구든 이를테면 아프리카 서부의 가게 주인에게서 꾸란을 한 권 사서 그것을 사바출신의 하피즈-꾸란을 암기하는 사람-의 구두 낭송과 대조한 다음 우쓰만 시대에 발행된 원문의 사본과 비교해 보면 그런 의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보도까지 하여 그것을 세상에 공표하십시오. 사실 그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일테니 말입니다.

## 이들 사본은 어느 정도까지 완전하게 보전되었습니까?

꾸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을 수도 있고 물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재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꾸란이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처음에 세상에 내놓은 원문과 한 마디 한 마디가 똑같다는 사실에는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논의의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인 바, 이슬람을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자들조차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신빙성을 가진 기록은 세상에 또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로마제국이 있었는지, 무굴인들이 인도를 지배했는지, 나폴레옹 보나프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의심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학식이 아니라 지독한 무식입니다.

## 꾸란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꾸란을 연구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꾸란을 읽습니다. 이들 여러가지 목적을 전부 참작하여 조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꾸란을 이해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인도를 베푸는지 알아야겠다는 진정한 바람으로 꾸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관심을 두겠습니다.

앞서 암시한 바와 같이 꾸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상관없이 꾸란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싶어 한다면 먼저 자신의 모든 선입관을 없애고 마음을 활짝 연채로 꾸란을 대해야 합니다. 동기는 오로지 꾸란을 이해하는데 있어야지 특정 신념이나 사상에 대한 확증이나 반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정 사상을 의중에 두고 꾸란을 접하면 마치 꾸란을 전혀 읽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기존견해를 확인하는데 그쳐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따지든 책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지금의 경우가 특히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꾸란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이해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 꾸란을 이해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꾸란을 그저 대충 알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번만 읽어도 충분하겠지만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 번이나 네 번 읽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지한 학생같이 읽어나가면서 요점을 적을 수 있도록 가까이 펜과 종이를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꾸란 특유의 신념 체계와 관습과 더불어 꾸란이 초대하는 생활 방식을 충분히 넓게 이해하려면 적어도 두 번은 읽어야 합니다. 꾸란이 제시하는 기본 개념들과 이들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꾸란이 확립하고자 하는 생활 체계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든 의심이 생기면 즉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어 놓고 연구해나가십시오. 필시 멀지 않아 해답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답 역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처음 읽을 때 해답을 구하지 못하면 참을성 있게 다시 읽어야 합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미루어 세 번읽어야 해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ㄱ) 꾸란은 몇 번이나 읽어야 합니까?

(ㄴ) 읽다가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처럼 꾸란을 개관한 후에 세부 연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꾸란의 가르침의 각 측면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애라고 하는 꾸란의 이상과 꾸란이 승인하는 인간형과 승인하지 않는 인간형을 이해하려 할 경우에는 포괄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긍정적 자질과 부정적 자질을 대조하여 적어야 합니다. 또 무엇이 인간을 행복과 구원으로 인도하고 무엇이 인간을 불행으로 인도하는지를 알려고 할 경우에도 역시 이를테면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이라는 표제 아래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을 위와 마찬가지로 비교,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도덕, 권리, 의무, 사회생활, 문화, 경제, 정치, 경륜, 법률, 사회조직, 전쟁, 평화와 기타 인류의 모든 문제에 관한 꾸란의 가르침을 같은 식으로 계속 적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결국 선별된 각 측면 모두에 대한 가르침과 꾸란이 그리는 새오할 방식 전체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어떤 문제에 대한 꾸란의 해결책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그에 대한 고금의 현존 문헌을 모두 정독하여 근본 쟁점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여 왔으며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간의 지성이 해결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들 미해결의 쟁점(혹은 문제)을 염두해 두고 꾸란에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이런 방법을 택하면 일찌기 거기에 내포된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으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읽었을 지도 모를 많은 성귀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ㄱ) 꾸란의 세부적인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꾸란에서 찾으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 실천-완전한 이해의 유일한 방법

하지만 이처럼 노력한다고 해도 진정한 의도로써 꾸란이 인간에게 맡기기로 되어 있는 사업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는다면 꾸란의 참다운 정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꾸란은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연구하거나 한가하게 읽어서 그 내용을 터득할 수 있는 추상적인 사상서나 이론서가 아닙니다. 그 신비와 미묘한 점을 교실에서 토론하거나 수도원에서 조용히 명상하여 풀어낼 수 있는 있는 통상적 의미의 종교서도 아닙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꾸란은 다와(혹은 선교)서요 행동으로서의 초대서요 운동서입니다. 조용하고 겸손하며 악의 없는 사람을 은둔 상태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을 등진 세상 전체와 무섭게 대결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엄연한 측면이었습니다. 꾸란은 그 분을 고무하여 온갖 거짓을 지탄하고 파탄과 방종의 지도자들과 본래 영혼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그 초대로 이끌어내어 지도자의 기치아래 모았으며 악의적이고 반항적인 영혼을 자극하여 그들과 진리의 옹호자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초대는 일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만 23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짐으로써 그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이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필요한 인도를 베푼 것은 바로 이 성서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치명적인 오래 끈 투쟁의 각

국면에서 구질서와 싸우고 구질서 대신에 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을 적시한 것도 바로 이 성서였습니다. 배경이 이러한데 믿음과 불신, 이슬람과 무지사이에 투쟁에 결코 참여하지 않고 전투의 실상도 전연 모르면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 어찌 그 모든 신비가 풀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성서를 자신의 인도로 삼고 다와(혹은 선교)를 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초대하는 일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는 한 결코 그 전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서가 명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계시된 기간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던 국면들이 당신에게 재현될 것입니다. 초기 무슬림들이 맥카에서 겪은 시련, 아비시니아로 이주, 성예언자께서 하신 따이프로 비극적 여행의 단계와 바드르, 우흐드, 후나인, 따부크의 단계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판 아부자흐와 아부라합을 만나고 옛날의 위선자와 유대인의 영적 후계자들을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에 맨 먼저 응한 사람과 맨 나중에 응한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선물로 그 마음을 설득해야 했던 사람과 영적으로 상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인간 영혼의 순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꾸란 자체의 인도를 받아 꾸란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꾸란의 가장 불가사의한 점은 어려운 일이 닥치는 각 단계마다 꾸란의 여러 수라나 절이 마치 바로 이런 단계를 위해서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당신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즉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나 문법 혹은 수사상의 미묘한 점은 놓칠 수도 있지만 꾸란이 당신에게 그 참다운 정신을 알리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ㄱ) 꾸란은 어떤 책입니까?

(ㄴ) 꾸란의 배경에 비추어 꾸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ㄷ) 꾸란의 실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꾸란의 명령, 도덕 교훈,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원칙과 법률은 이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그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생활에서 꾸란의 인도를 무시하는 사람이나

집단 문제를 꾸란의 인도없이 규율하는 민족도 단순한 형식적 연구만으로 그 메시지를 이해 인식할 수 없습니다.

## 꾸란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메시지의 보편성

입문하지 않은 독자가 어려워 하는 또 한가지 점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을 위한 인도라는 꾸란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꾸란의 말씀이 원래 계시 당시의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실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꾸란이 인류일반과 일반 대중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외의 경우에 꾸란이 말하는 것은 아랍인들의 기호, 그들의 환경과 역사 습관과 관습에만 관련됩니다. 독자는 인류전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성서에 지방적, 시대적 색채가 어째서 그렇게 많은지 의아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란은 사실상 7 세기 아랍인들의 개혁만을 목적으로 했으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꾸란의 메시지가 보편적이라는 자위적 허구를 날조했을 뿐이라는 그릇된 결론을 내립니다.

## 꾸란의 지방적, 시대적 색채는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까?

그저 반대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심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하겠습니다. 꾸란을 잡고 연구하면서 당시의 아랍인들에게 한정되고 시공의 면에서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는 믿음을 규정하거나 사상이나 이론을 설파하거나 도덕 원칙이나 교훈 혹은 기타의 규정을 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곳을 표시해 나가십시오. 꾸란이 원래 특정 시점에서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특정의 비이슬람적 신념이나 관습을 논박하며 그들 자신의 과거나 환경에서 도출된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논증을 하였다는 단순한 사실은 꾸란의 초대와 호소가 일시적이며 지역적으로 적용될 뿐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거의 못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점은 예를 들면 꾸란이 쉬르크를 논박하여 말한 것을 아랍인들이 행한 쉬르크에 적용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세계의 어느 시대, 어느 곳의 어느 쉬르크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동일 논증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쉬르크에 빠져있는 여타의 모든 사람들의 이론과 신념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까지도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꾸란의 논증도 필요하다면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부정적일리가 없다-꾸란의 특정 시대에 계시되고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느 체계나 생활 방식 혹은 종교사상 학파도 실천적 함의와 특정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추상은 첫째 불가능하며 둘째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책속에 머무를 뿐 전혀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 (ㄱ) 꾸란의 특수성(지역성, 시대성)이 꾸란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까?
- (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지적, 도덕적, 문화적 개혁을 위한 운동을 국제적인 규모로 일으키려 한다면 처음부터 운동이 국제적이 되게 하는 것은 전혀 필요치 않으며 사실 운동 자체를 위한 길도 아닐 것입니다. 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운동이 일으켜진 나라의 사람들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세우기 위하여 운동이 추구하는 개념과 원칙을 그들이 가능한 한 단호히 고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 밖에 없는 올바르고 실제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운동의 지지자들이 그 언어와 기질, 습관과 민족성을 익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호소가 크게 성공하기를 바랄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원칙을 자기 나라에 실천하여 특정 생활 방식을 세우는데 성공하였다면 동료인간을 초대할 곳을 나타내는 본보기로 그것을 세상을 향해 치켜 들게 하십시오. 그 때에만 다른 민족이 충분한 호기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 민족의 지식 계층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생활 방식이 유익하다고 확신할 경우에 그것을 자기들 나라에 도입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상과 행동의 특성 체제가 원래 어느 특정 민족에게 제시되고 그것을 설명 권유하여 그들을 그 교리로 전향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이 경주되었다는 사실은 그 특정체제가 지역적으로만 적용하게 되어 있었고 특정 시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논거가 못됩니다.

- (ㄱ) 개혁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까?
- (ㄴ) 사상과 행동의 특정 체제가 시대성과 지역성을 반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편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 (ㄷ)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민족적 혹은 지역적 체제와 세계적 혹은 보편적 체제를 가르는 근본 특징은 전자가 특정 민족의 지배를 목표로 하거나 다른 민족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이론이나 원칙에 동의하는 반면에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 체제는 인류 모두의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대우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한편, 그 기저 원칙이 개념과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도 체제는 시간이 흐르면 진부해지고 쓸모 없이 되어 버리게 마련입니다.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에 영구 체제의 원칙은 상황과 조건이 변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관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꾸란을 신중히 살펴보고 나서 꾸란의 제원칙이 정말 어느 정도의 과도적 성격과 적용의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십시오.

### 특수 체제와 보편 체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주 오해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은 꾸란이 완벽한 생활 규범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막상 꾸란을 조사해 보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문제에 관한 자세한 교훈이 거의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되풀이 요구하는 두 가지 의무인 예배와 자카트의 경우에도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독자는 이런 필수 세칙이 없는데 어떻게 꾸란이 완벽하고 포괄적인 생활 규범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기 시작합니다.

### 오해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 점에 관한 모든 혼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꾸란을 계시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변자이자 대리자로 삼으시고 당신께서 뜻하신 대로 꾸란을 해석, 적용하는데 필요한 이해력을 그 정신에 불어 넣은 사도님(그분께 평화가 있기를)이 또한 계셨습니다. 만약 그 분께서 새로운

패턴만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패턴에 따라 사람들이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하기로 뜻하셨다면 합당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사소한 점에 대해서도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설계도가 있고 모든 필수 세칙을 만들 능력이 있는 명 건축가가 또한 있다면 그 분께서는 다만 제 요건을 개괄적으로 말씀하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란의 계시에 더하여 어떤 마련을 하셨습니까?**

꾸란은 세칙의 책이 아니라 원칙과 개념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꾸란 본연의 역할은 이슬람 생활 방식의 지적, 도덕적 기초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성과 논리로 그 기초를 강화하며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측면 즉 이슬람의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세우는 작업으로 말하자면 꾸란은 세부에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인간 생활의 각 측면 모두에 대한 규제 방법을 정하는 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꾸란은 다만 윤곽을 그리고 개략적 패턴에 실체를 부여하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의 과업이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임명되어 이상적인 사생활 방식과 이상 사회와 이상 국가의 살아있는 본을 세상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살아있는 본이 바로 꾸란 원칙의 실천적 해설이었습니다.

**(ㄱ) 꾸란 본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ㄴ) 꾸란의 역할과 관련하여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해석의 차이**

끝으로 해석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꾸란이 하나님의 계시가 온 후에 차이가 생기고 공동체가 분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들을 심히 비난하고 있는데도 꾸란의 명령의 경우에 후기의 학자들과 이맘 그리고 무슬림 2 세<sup>6</sup> 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

<sup>6</sup> 무슬림 2 세 라는 말은 예언자의 동료들에게 이슬람을 배우고 그 분들의 뒤를 바로 이은 세대를 가리킨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해석의 차이가 많아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명령이 들어 있는 성구가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라는 사실에서 언뜻 모순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비난 받아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꾸란이 이토록 소리 높여 비난하는 차이는 어떤 종류와 성격의 차이입니까?

### 해석의 차이에 대하여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이것은 다원적인 문제이므로 길게 설명해야만 만족스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그은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기본 원칙에 대하여 합의가 있고 이슬람의 테두리 밖에서 행동할 의사가 없다면 꾸란이 건전한 견해 차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정도로 아마 일반 독자를 만족시키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그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실천적 합의를 찾거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내는데만 목적을 두는 한 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난 받아야 할 것은 이기적인 동기와 부패한 정신 때문에 생기는 파벌과 분파로 유도하는 견해 차이입니다. 두 가지의 견해 차이는 그 결과는 물론 그 각각의 성격이 판이하므로 잘못하여 둘을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첫번째 차이는 발전의 생명이요 삶의 본질입니다. 사고하기를 좋아하는 지성인들이 있는 사회 어디에서나 이러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 (ㄱ) 꾸란은 어떤 견해 차이를 인정합니까?
- (ㄴ) 견해 차이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차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고개를 들 때마다 고통과 파멸을 불렀을 뿐이므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그 결과 역시 관련 공동체의 불행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의 비교를 통하여 두 종류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의 한 가지 형태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그 분의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에 대한 복종이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성 꾸란과 순나를 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적인 법원과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두 명의 울라마가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두 명의 법관이 비슷한 두 사례에 있어서 다른 판결을 내리지만 둘 중 누구도 자기 견해를 유일한 종교법관으로 삼지 않으며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관련 명령의 정신에 근접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자신이 아는 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하되 그 문제를 사회에 혹은 법률 문제인 경우에는 그 나라의 최고 법원에 공공 문제인 경우에는 관할 회의체에 위임하여 어느 한 견해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양식에 가장 크게 어필하는 어느 한 견해를 택하여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견해가 모두 효력을 갖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 기본 원칙에 합의하는 경우에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형태의 차이는 기본 교리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하나님이나 그 분의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기본적인 거스로 지정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학자나 수피나 무프티(이슬람 법학자) 혹은 논리학자나 지도자가 자신의 특정 견해를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기본적 믿음의 문제로 단언하고 나서 그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슬람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간주하여 자기와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자기 집단만이 무슬림 공동체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옥의 주민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무에게나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당신은 무슬림도 아닙니다.”라고 소리치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꾸란이 견해 차이나 사람들의 집단화를 비난할 때는 항상 두 번째 형태를 비난합니다. 첫번째 형태로 말하자면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의 시대에도 이런 차이를 보이는 예가 많았는데 그 분은 이를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런 차이가 공동체에 탐구의 정신, 지력, 이해력 그리고 생각하고 숙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머리가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와 그 명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의 테두리 밖이 아니라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공동체 전체가 원칙 문제에 합의하여 그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당한 한계 내에서 학자들의 연구와 지적인 사색의 자유를 보존하여 발전으로 가는 길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황금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천학비재한 저자의 소견인 바,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저자는 그 분을 신뢰하며 매사를 그 분께 의지합니다.)

(ㄱ) 꾸란은 어떤 견해 차이만 비난합니까?

(ㄴ)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허용하신 견해 차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 부록

전기의 번역문에 초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꾸란을 읽는게 허용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마울라나 마우두디는 그 문제를 상술할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아마 일부 독자들은 다음 설명으로부터 얻은 바가 잇을 것이다. 쿠르시드 아흐만 형제가 편찬하고 카라치의 자미야-뿔-팔라 출판사가 발행한 “꾸란 입문”의 설명을 약간 고쳐서 전재하기로 한다.

## 바꿔읽기

이제 꾸란이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는 오해를 야기한 꾸란의 바꿔 읽기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다음의 사실이 바꿔 읽기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시대에 사용된 아랍어 서체에는 점이나 모음 부호가 없었습니다. 예언자의 서기들은 바로 이 서체에 그 분이 받아 쓰게 한 꾸란을 기록했으며 자이드 역시 아부 바크르의 지휘하에 마련된 사본들도 이 서체로 쓰여졌습니다.

2. 꾸란 원문은 이와 같이 기록으로 보존되었지만 그것은 전파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문맹이 많았고 종이나 다른 필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배운 아랍인들은

꾸란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읽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와 그분의 동료들께 들어서 꾸란 전문을 암기했으며 자기들이 배운 대로 읽고 또 그대로 남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마치 아는 사람의 영어 단어 발음을 듣고 나서 그것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는 경우와 같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아는 사람이 내는 ‘should’나 ‘would’라는 단어의 발음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다 사전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l’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또한 ‘our’ ‘out’ ‘you’ 가운데 ‘ou’의 발음이 다르게 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 단어의 발음을 들으며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꾸란의 경우에도 역시 다른 사람이 낭송하는 것을 들어서 배운 사람은 나중에 원문 기록을 보고 읽을 때 틀리게 발음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3. 우쓰만은 자기 지휘하에 마련된 정전의 사본들을 발송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사본과 함께 까리 즉 원문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대리로 파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사본들을 보고 꾸란을 배운 사람들 역시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읽으신 대로 꾸란을 읽게 되었습니다.

4. 때가 되자 꾸란의 표준 독법을 지키려면 모음 부호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쓰라의 총독, 자이드(45-53A.H)의 제의로 점이 모음 부호로 정해졌습니다. 압둘 말리크(65-85A.H)의 치세 중에 핫자즈 빈 유스프가 학자들에게 명하여 새로운 기호를 모음 부호로 정하고 점은 비슷한 글자를 서로 구별하는데 쓰게 하였습니다. 그때 고안된 기호가 오늘날까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무슬림들이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읽은 식대로 꾸란을 계속 읽어왔다는 게 분명해 집니다. 단지 몇 안되는 사소한 바뀌읽기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무슬림 학자와 까리들의 일치된 의견은(1)우쓰만이 배포한 사본의 서체와 일치하고 (2)아랍어사전과 그 용법, 관용 어법과 문법에 따름며 (3)특히 끊이지 않는 전자 연쇄를 통하여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를 있기를)께서 소급할 수 있는 독법만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바뀌읽기가 불과 몇 개 있을 뿐인 까닭입니다. 이들 독법조차도 의미가 서로 모순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의 범위를 넓혀 낱말이

더욱 포괄적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성 예언자(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께서 친히 바뀌서 읽으셨다는 사실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이 바로 그 실례입니다.

꾸란 서장인 알-파티하장 3 절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심판날의 주인을 뜻함”이라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날의 왕을 뜻함”이라 읽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런 모순도 일으키지 않고 의미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또 제 3 장인 알-마이다장 6 절을 읽을 때도 -맨발인 경우에 세정할 때 하는것처럼 “내 손을 씻고...머리를 닦고 발을 (씻으라)”는 의미-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네 얼굴을 씻고...머리를 닦고(닦으라)젖은 손으로”는 의미-이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식 세정을 할 때는 발을 씻어야 하지만 후에 (세정 상태에 있는 동안에) 양말을 신었다면 다음에 세정해야 할때는 젖은 손으로 양말위를 스치기만 해도 됩니다. 이는 용인된 바 거주자에게는 24 시간 동안 유효하고 여행자에게는 72 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본질적으로 모순이 없고 오히려 의미가 확대되어 있는게 분명합니다. 여타의 모든 바뀌 읽기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끝)